

투기수요 줄어 원자재값 하락 지속

(2008. 9. 22)

하반기 원자재 가격은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품목별로 차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2일 '최근 원자재 가격 급변동의 원인과 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달러화 강세와 수급개선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은 하반기에 완만한 내림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의 무역적자 개선 등의 영향으로 달러화는 저점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크고 수급도 개선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그동안 원자재 대부분은 품목별 수급과 관계없이 유가와 연동성이 컸으나 앞으로는 시간이 지날수록 품목별로 차별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납이나 주석 등 비철금속도 재고량이 감소해 수급상황에 따라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며 투기수요보다는 가격 결정의 근본적인 원인인 수급 상황을 더욱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주요 원자재의 가격 상승분에서 40~60%는 투기수요에 의한 것"이라며 달러화 강세로 투기수요가 줄면서 투기수요에 의한 가격 급등분은 이미 조정을 거쳤다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정부는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하고 대형 자원개발 전문기업을 육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원자재 가격이 하향세를 보이면서 물가도 내림세로 돌아섰다. 8월 수입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42.6% 증가했으나 전월(50.6%)보다는 하락 추세로 전환했다. 8월 생산자물가도 전년 동월 대비 12.3% 증가해 전월(12.5%)보다 낮아졌다. 소비자물가도 전년 동월 대비 5.6% 상승해 전월(5.9%)에 비해 하락했다.

"탄소섬유를 콘크리트에..."

기술 개발로 수명 늘린다

(2008. 9. 24)

첨단소재인 탄소섬유를 콘크리트 구조물 및 연약

지반의 보강에 활용하는 기술이 개발돼 콘크리트 구조물의 수명을 늘리고 공사비도 줄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 위탁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2005년부터 지원해온 자유공모과제의 연구성과 중 하나로 이 같은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연구내용을 지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제안을 받아 우수한 과제를 선정·지원하는 자유공모 방식으로 올해까지 총 72개 과제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기술은 낡은 콘크리트 구조물 보강시 탄소섬유 복합재료(CFRP)를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 방법보다 보강효율을 30% 향상시키고, 공사기간은 20% 단축할 수 있으며 처짐 및 균열 등에 대한 성능도 크게 개선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탄소섬유(Carbon Fiber)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철근에 비해 무게는 5분의 1에 불과하지만 강도가 6배 이상인 첨단 재료로 내부식성·내구성 등이 매우 우수하며, 현재 항공기 등 첨단 분야에서 주로 사용하고 건설공사에서는 구조물의 보수·보강에 극히 일부 사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매립지 등 연약지반을 보강할 때 가벼운 탄소섬유를 이용해 시공하는 공법 및 장비도 개발됐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공사비 절감·공기단축이 가능한 첨단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내년에도 자유공모과제를 새로 선정해 약 3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레미콘업계

"자갈·모래 어디 없나요"

(2008. 10. 5)

레미콘업계가 골재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5일 관련 업계는 현재 레미콘 제조에 필요한 자갈·모래 등 골재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이달부터 골재 부족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 인천지역 레미콘업체들은 자갈 가격을 m³당 2만원에 공급받고 있다. 평균 자갈 가격은 1만 2,000원 정도였다. 뿐만 아니라 보통 대형 레미콘사들은 골재

를 제공하는 기업들과 1년에 한번씩 가격협상을 하는데 올해는 벌써 세번이나 가격협상을 했다. 하지만 업계는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골재 공급량이 부족해지면서 업계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웃돈을 주고 사려 해도 자갈·모래가 없는 실정”이라며 “9월까지의 여기저기 산지에서 골재를 끌어다 써서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올 상반기에 산림 골재 채취계약이 거의 끝나 현재는 골재 수급상황이 좋지 않은 실정이다. 여기에 새로운 골재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친환경 문제가 불거지면서 허가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 더욱 문제는 골재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설사 지금 당장 채취허가가 떨어진다고 해도 파쇄 등의 생산절차를 거쳐 레미콘공장에 공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게다가 밀린 물량도 많다. 이 때문에 대형 레미콘사들은 직접 골재를 채취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아주산업 관계자는 “현재 골재 공급이 심각한 문제”라며 “아주산업은 골재를 직접 채취하는 사업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멘트 유해논란 더이상 없다”

(2008. 10. 7)

“이제 시멘트의 유해성 논란을 확실하게 매듭 짓자.” 시멘트업계가 고질적인 시멘트 유해성 논란의 종지부를 찍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다. 쌍용양회, 동양시멘트, 성신양회, 라파즈한라 등 시멘트업체들은 한국양회공업협회를 중심으로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품질 기준과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공장 주변 주민들에 관리실태를 공개하는 등 투명경영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양회공업협회는 최근 ‘시멘트 제조시설의 폐기물 사용 자율기준’을 통해 부원료 및 보조연료로 소성로에 투입되는 재활용 자원의 제조공정별 품질기준 및 관리방안 등을 발표했다. 이 기준과 관리방안은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양회공업협회 관계자는 “지정 폐기물의 사용 금

지는 물론 유해성 논란이 큰 폐기물에 대해서도 투입을 엄격히 제한했다”고 밝혔다. 부원료의 총 크롬 뿐 아니라 보조연료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정부의 에너지화 정책에 부합하도록 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시멘트업계는 또 유해물질 분석결과에 따라 등급을 나눠 검사주기를 설정·관리토록 했다. 이에 따라 품질기준에 미달될 경우 반입을 즉시 중단하기로 했다. 운반·보관·투입시에는 외부 유출 및 비산방지를 위해 밀폐시설·덮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폐합성수지를 포함한 폐합성 물질은 철저히 밀폐 관리한다. 환경부도 현행 재활용 신고제인 시멘트공장의 폐기물 사용 제도를 폐기물처리업 허가제로 바꾸는 내용으로 관련법을 개정해 연말께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같은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시멘트 제조업체의 폐기물 소각처리업을 합법화시켜 주는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멘트업계 관계자는 “신고제에서는 사전통제가 안된다며 비판하더니 막상 허가제로 변경한다고 하니 다시 특혜를 준다는 지적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다”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한편, 환경부는 최근에도 강원·충북지역의 9개 시멘트사 11개 공장에서 시멘트 시료를 채취해 중금속 함량을 조사한 결과, 중금속 함량이 모두 국내 기준보다 엄격한 일본 자율기준을 충족시켰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 “시멘트, 작년보다 30% 증산”

(2008. 10. 13)

북한이 올해들어 지난 9월까지 생산한 시멘트 총량이 지난해 생산량보다 30%나 증가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9일 건설건설공업성 박영수 부국장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중앙방송은 특히 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평남 순천시), 천내리시멘트공장(강원도 천내군), 대안천선유리공장(평남 대안군) 등의 시멘트 생산과 유리 생산이 혁신적으로 증가해 “최근 연간에 가장 높은 생산실적으로 기록됐다”고 주장했으나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시멘트업계 “마른수건도 짤다”

(2008. 10. 20)

“줄일 수 있는 것은 모두 줄여라” 시멘트업계가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해 마른수건 쥐어짜기에 돌입한 것이다. 20일 시멘트업계에 따르면 쌍용양회는 최근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키로 하고 전임직원에게 비상근무 지침을 내렸다. 우선 쌍용양회는 연말까지 평일 근무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토요일도 정상 근무키로 했다. 또 친목성 부서회식이나 연수성 해외출장을 금지하는 등 지출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라파즈한라시멘트도 비용 감축을 위해 생산 공장 및 본사 사무실 등의 전력비 절감에 주력키로 했다. 또 전부서가 월초 비용 절감 계획을 세워 월말에 성과를 분석하고 있다. 성신양회도 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대대적인 원가절감을 벌이고 있다. 이면지를 사용하고 점심시간에 사무실 소등은 기본이며 운송업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영업비용 지출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현대시멘트도 상시적인 원가절감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생산공장은 물론 본사 등에서 자체 비용 절감계획을 세워 전력비, 운송비, 영업관리비 등 원가절감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시멘트업계 한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경영상태가 나아지지 않고 있어 건축경쟁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시멘트업계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단 위기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건설,

초고층 콘크리트 기술 국산화 성공

(2008. 10. 22)

앞으로 국내에서도 100층 이상 초고층에 국내 콘크리트 기술이 선보일 전망이다. 현대건설은 최근 레미콘 6개사와 공동으로 연구개발과 실내 실험을 거쳐 초고층 매스콘크리트 기술인 ‘목-업(Mock-Up)’ 실험에 성공했다고 22일 밝혔다. 6개사는 (주)강원,

(주)렉스콘, (주)삼표, 쌍용양회(주), 아주산업(주), 유진기업(주) 등이다. 이 기술은 국내 최초로 그동안 국내에서는 100층 이상 건물이 없어 기술개발이 늦어졌다. 63빌딩급 규모의 건물 건립시 사용했던 콘크리트 시공 방식의 경우 100층 이상에 적용할 수가 없다. 현대건설은 현재 설계 단계에 있는 인천타워(151층)는 물론 해운대관광리조트(117층) 등 100층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에 이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미 이 회사는 콘크리트 분야에 있어 초고강도 콘크리트, 초저발열 콘크리트를 개발한데 이어 이번에 초고층 기초용 매스콘크리트 개발에 성공, 세계적인 기술을 차례로 보유하게 됐다. 정수현 현대건설 건축사업본부장은 “현대건설이 쌓아온 이러한 기술은 국내 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 적용되고 있는 초고층 프로젝트에도 사용해 우리 기술이 세계에 전파되는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불에 견디는 초고강도 콘크리트 개발

(2008. 10. 27)

‘콘크리트 박사’로 유명한 청주대 건축공학과 한 천구교수 연구팀이 기존 콘크리트보다 불에 강한 세계 최고 수준의 고성능 콘크리트 제조법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한 교수팀이 개발한 새로운 콘크리트 제조법은 이불솜 등으로 쓰이는 폴리프로필렌 섬유와 나일론 섬유를 일정 비율로 섞은 것으로, 내화성(耐火性)과 강도를 크게 높였다. 이 공법을 적용할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초고강도 콘크리트 생산이 가능해 경제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초고층 건축물의 안전도가 향상돼 화재에 의한 건물 붕괴 가능성을 크게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콘크리트로 건설되는 모든 초고층 건축물에 내화 대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침을 고시했다. 한 교수는 “새로운 제조법으로 만든 콘크리트를 고온으로 가열해 내부 철근 온도를 측정할 결과, 정부가 고시한 내화 규정보다 크게 낮았다”며 “철근 온도가 낮을수록 콘크리트가 불에 강하다는 것을 의

미한다”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우리나라 콘크리트 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기술 수출을 통한 부가가치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교수팀은 최근 내화공법에 대한 국제특허를 출원했고, 25일 전남대에서 열린 대한건축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국내 최고의 콘크리트 전문가로 알려진 한 교수는 그동안 잔디 식재용 콘크리트 블록과 콘크리트 균열억제 공법 등을 개발해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엔高 때문에...”

일본 시멘트, 한국수출 줄인다

(2008. 10. 31)

일본 시멘트 업체들이 원화 대비 엔화 가치의 급등으로 채산성을 맞추지 못하자 한국 수출 물량을 대폭 줄일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지사이신문이 31일 보도했다. 우베 미쓰비시 시멘트는 내년 4월부터 한국과 말레이시아용 시멘트 수출을 전면 중단키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시멘트를 공급해온 업체와 계약 갱신을 중지해 단계적으로 수출량을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신문은 이같은 결정과 관련, “(한국의) 주택 시장 침체와 급속한 엔고에 의한 채산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수요가 건조한 호주 수출로 물량을 돌릴 것”이라고 전했다. 또 스미토모 오사카 시멘트도 한국용 수출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급격한 환율 변동으로 일본 기업들 사이에서 수출 전략을 큰폭으로 재검토하는 움직임이 퍼질 것 같다”며 시멘트업계 외에도 일본 기업들의 한국수출 전략이 상당히 바뀔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코레일, 11월부터 경부선 가천역서

대구·경북지역 시멘트 수송 시작

(2008. 10. 31)

코레일(사장 강경호)은 경부선 가천역(동대구역~경산역 사이 고속철도 고모기지내 위치)에 양회

싸이로(Silo)가 조성돼 11월부터 대구·경북지역에서 소비되는 시멘트의 철도수송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조성된 경부선 가천역 양회 싸이로(1기)는 6천여톤급으로 화물자동차 120대 분량의 시멘트를 일시 저장할 수 있는 규모이다. 코레일은 이번 가천역 양회 싸이로 개통으로, 대구·경북지역의 시멘트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시멘트 화물의 철도수송 분담율이 향상돼 도로교통 혼잡 해소 등으로 국가 불류비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코레일은 지난 2월 대구선 철도시설사업으로 존재 위기에 처한 반야월역의 양회 싸이로 이전을 위해 국토해양부, 대구광역시, 철도시설공단, 양회 싸이로 운영사인 한일시멘트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이번 가천역의 양회 싸이로 조성을 이끌어냈다. 한편, 대구선 철도시설사업은 대구광역시의 도시계획에 따라 대구시가지를 관통하는 동대구~반야월~청천간 14.0km를 철거하고, 동대구~고모~청천간 16.5km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코레일은 대구선 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지난 2월 15일부터 반야월역의 화물열차 운행을 중단했으며, 지난 5월 15일 옛 대구선을 완전 폐선했다.

국내 시멘트 중금속 기준 ‘합격’

(2008. 11. 3)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9월 23~25일 국내 11개 시멘트 생산공장을 대상으로 국산 시멘트의 6가크롬 함량을 조사한 결과 11곳에서 생산한 제품이 모두 자율관리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6가크롬은 피부질환과 천식 등의 각종 질병은 물론 암까지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해 중금속으로 이 물질에 대한 국내산 시멘트의 현행 자율관리기준은 30mg/kg이다. 조사 결과 11개 공장에서 생산한 시멘트의 평균 6가크롬 함유량은 11.6mg/kg으로 현행 자율관리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하나도 없었다. 내년부터 강화될 새 자율관리기

준 20mg/kg을 적용해도 1개 공장 제품(24.7mg/kg)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공장 제품은 여전히 기준치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납, 구리, 비소, 수은, 카드뮴 등 6가크롬을 제외한 나머지 중금속의 시멘트 함유량은 지난 5월 실시한 정밀조사 때와 비슷한 수치였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매달 국산 시멘트 제품의 6가크롬 함유량을 조사해 자율관리기준을 준수했는지 등의 여부를 따져본 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그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원자재값 내려도 시멘트社 '한숨' 여전 (2008. 11. 4)

시멘트업체가 최근 유연탄 가격 하락세에도 여전히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있다. 지난 7월 톤당 평균 180달러까지 치솟던 유연탄 가격이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지난달 130달러 수준으로 급락했지만 지난 5월 업체들이 대부분 연간 공급계약을 체결해 내년초까지 유연탄 가격 흐름은 별개의 일이 되고 있다. 더구나 성신, 쌍용, 현대시멘트 등 선발업체의 가격인상 시도가 래미콘업계 반발로 표류하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출혈매출이 늘어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4일 시멘트업체에 따르면 안정적인 물량확보를 위해 매년 5~6월쯤 유연탄 연간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지난 5월 톤당 145~150달러 수준으로 유연탄 공급계약을 중국 등과 맺었다. 업계관계자는 “유연탄 가격이 하락한다고 기존 공급계약을 수정하거나 파기 후 다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며 “중국쪽의 요구도 있고 안정적인 공급처 마련을 위해 연간계약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연탄 가격등락폭 편차가 크면 어느 정도 위험회피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즉, 지난 7월께 톤당 180달러까지 급등했을 시 톤당 150달러 내외로 연간계약을 맺은 시멘트 업체는 이득이 되는 반면 최근처럼 톤당 130달러로 하락했을 경우 오히려 손해가 된다. 하지만 1년간 평

균적으로 보면 연간계약으로 도입하는 유연탄 가격하고 큰 차이가 없어 기존의 계약관행대로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대규모 공급처인 중국이 유연탄 물량 부족으로 공급우선권을 연간계약 업체에 주고 물량이 남을 경우 스폿으로 국제시장에 공급하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스폿물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연간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것. 시멘트 A사 관계자는 “유연탄 가격변동폭이 워낙 커 올라도 걱정, 내려도 걱정”이라며 “일부에서 유연탄 가격을 유가와 동일시해 오해가 생기기도 하는데 유연탄은 연간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계약 이후 가격이 변동해도 공급가와 직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B사 관계자는 “유연탄 가격이 내린다고 시멘트업체가 나아질 것으로 보면 오산”이라고 말한 뒤 “가격인상은 요원하고 원가 부담은 여전히 생산할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추세여서 어떻게 버텨야 할지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전했다.

시멘트업체 “엄동설한 어찌날지...” (2008. 11. 17)

시멘트업체들의 실적이 최악으로 치닫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주요 시멘트 6개사의 3/4분기 누적 실적은 공통적으로 외형은 확대된 반면 유연탄 가격과 환율상승으로 수익성은 크게 악화됐다. 동양, 한일, 아시아 3곳은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했으나 감소폭이 최대 70%에 이르렀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보여왔던 한일시멘트도 감소세로 돌아섰다. 순이익도 암울하긴 마찬가지다. 대부분이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그나마 흑자를 기록한 한일, 아시아는 50% 이상 이익 규모가 줄어들었다. 시멘트는 진입장벽이 높지만 업체간 품질, 생산 기술상의 차별성이 크지 않아 제조원가, 물류비용의 절감을 통한 원가경쟁력이 주된 경쟁 요소다. 따라서 원가 비중이 높은 유연탄 가격이 급등하고 환율까지 치솟으면 벼랑끝에 몰릴 수밖에 없다. 참담한

3/4분기 누적 실적이 이를 대변해 주고 있다. 여기에 시멘트 가격 인상은 언제 반영될지 기약도 없어 앞친데 뒷친격으로 위기감은 나날이 더해지고 있다. 시멘트업계 A사 관계자는 “적자는 예상했지만 이 정도인 줄은 몰랐다”며 “업계 전반적으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고 전했다. B사 관계자는 “대부분의 시멘트 업체들이 당기순이익, 영업이익이 올 3/4분기뿐 아니라 지난 분기 다 합쳐도 반토막이 난 상태”라며 “회사 내부적 요인보다 외부적 요인 때문에 실적악화를 기록하고 있어 건설경기가 되살아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가 전반적으로 안 좋지만 시멘트 가격 인상이 돼야 시멘트 업체들이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C사 관계자는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사적인 경영혁신과 비상경영체제 가동으로 손익개선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버티는 것도 체력이 있어야 가능한데 이러한 추세가 1년 이상 지속된다면 한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행업 '한파'에 레미콘업계도 '공공'

(2008. 11. 18)

건설경기 부진에 따른 한파가 서서히 레미콘업계로 번지고 있다. 17일 레미콘공업협회(회장 김호)에 따르면 건설공사 성수기임에도 지난달 수도권의 레미콘 수요가 크게 감소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소재 102개사 179개 공장에서 지난 10월 한 달동안 내보낸 레미콘이 499만 1,900m³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8.4%, 46만 700m³가 감소한 것. 부문별로는 민수용이 465만 1,600m³로 작년보다 8%, 관수용이 34만 300m³로 13.6% 각각 감소했다. 이로써 올들어 지난달까지 수도권 건설현장에 공급된 레미콘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9% 증가한 4,150만 6,200m³를 기록하게 됐다. 권역별로는 고양·파주권과 경기북부권, 인천·부천권 등이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며 시장을 견인했다. 그러나

서울중심권을 비롯해 안양권, 수원·화성권, 여주·이천권, 경기동부권 등은 15~30%나 감소했다. 레미콘수요가 이처럼 감소하고 있는 것은 극심한 건설경기 부진으로 아파트 등 주택건설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특히 재건축사업 등의 위축으로 서울중심권의 출하가 17.5%나 줄어든 것이 수요감소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레미콘업계는 경기부진으로 아파트 착공현장이 점점 줄고 있어 수요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레미콘업계 관계자는 “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고양·파주 등 일부 권역을 제외하고는 당분간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는 한 수도권도 한파를 피해가기는 어렵다. 따라서 연말까지 수요도 작년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

한국콘크리트학회 작품상 수상

(2008. 11. 19)

한국도로공사는 자연경관과 잘 어우러지고 미관이 탁월한 국내 최장지간 콘크리트 아치교인 죽림1교(전주-광양간 고속도로)가 2008년 한국콘크리트학회 작품상으로 선정되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콘크리트학회 작품상은 설계와 시공 뿐만 아니라 구조물의 미적요소까지 고려하여 건축과 토목분야에서 탁월함이 인정되는 구조물에 대해 주어지는 상이다. 작품상을 받은 죽림1교는 죽림온천 관광지를 횡단하는 총연장 215m, 아치(Arch)경간 125m의 국내 최장지간 콘크리트 아치교로, 기존의 단순하고 획일화되었던 교량구조물의 틀을 깬다. 또한 교각과 바닥판이 부드럽게 시공되었으며, 곡선의 아름다움을 잘 살린 점, 건설 작업시 고소작업에 따른 어려움을 자체적으로 개발한 시스템을 통해 극복한 점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교량구조물이 우수상을 수상하는 경우는 이례적으로, 주로 미관의 수려함을 앞세운 건축구조물이 그동안 주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도로공사는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연 친

화적이면서 미관이 우수한 고속도로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이번 수상 소감을 밝혔다.

시멘트업계,

'건설 후폭풍' 내년 예산도 못잡아

(2008. 11. 24)

시멘트업계가 2009년도 사업계획을 앞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건설경기 침체의 여파로 올 한해도 무더기로 적자를 낸데다 내년에도 뾰족한 대책없는 시계제로의 상황이다. 24일 시멘트업계에 따르면 주요 시멘트업체 대부분 내년도 사업 및 예산계획을 짜는 과정에서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 최대 수요처인 건설경기가 감소건설사 구조조정을 겪으며 침체가 가속화되는데다 유연탄 등 원재료의 국제시세와 시멘트 가격, 원/달러 환율추이 등 한치앞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이다. A사 관계자는 "건설사 구조조정, 건설경기, 국제시장 등 워낙 변수가 많아 예산부서에서 매우 힘들어 하고 있다"고 전했다. B사 관계자도 "예전부터 계속해온 건축경영에도 별다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데다 가격인상 효과도 거의 사라졌다"고 말했다. 당장 중소건설사의 잇단 부도와 구조조정으로 인한 후폭풍에 대한 우려가 크다. 10월부터 시멘트 가격을 인상한 시멘트업체들은 수요처인 레미콘업계가 반발에 부딪혔다. 일부 레미콘업체에서는 인상된 가격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대금지급을 해주지 않고 있다. 일부 업체에서는 부도 징후가 예상되는 건설현장의 레미콘업체에는 공급물량을 줄이거나 신규 사업장에 대한 거래에 각별히 조심하고 있다. 시멘트업체들은 주로 건설사에 납품하는 레미콘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다. 월별로 대금을 결제하는데 1개월 이상의 어음이 주로 활용된다. 건설사가 무너질 경우 레미콘-시멘트가 줄줄이 납품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C사 관계자는 그러나 "대부분 오랫동안 거래를 해온 터라 경기가 좋지 않다고 물량을 줄였다가 경기가 달라지면 반대로 피해를 볼 수 있어 이래저래 고민이 많은 게 사실"

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어디가 얼마를 물렸다" "어디가 조만간 문을 닫을 것이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대부분은 같은 부서 안에서도 루머가 확산될 것으로 우려해 입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다. 시멘트업계는 내년도 시멘트 내수출하는 올해보다 최대 10% 이상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양회공업협회에 따르면 올 1~10월 내수출하 잠정치는 4,130만톤으로 전년동기대비 1.1% 증가에 그쳤다. 시멘트 출하는 비가 오거나 추울때 평소보다 감소폭이 큰편인데 이 수치는 증가라고 보기에 어려운 수치. 최고 성수기인 10월 한달동안 내수출하는 작년동기대비 6%나 감소했다. 또한 건설수주, 건축허가, 건축착공 등 시멘트 내수출하를 가능하는 각종 지표들도 적게는 줄줄이 악화되고 있다. 시멘트업계 관계자는 "시멘트산업은 내수위주의 산업인데다 수출비중도 적어 건설경기 침체시 대응할만한 수단이 마땅치 않아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시멘트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건설경기 부양과 SOC 투자의 조기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수금 100억대 레미콘 직격탄

(2008. 11. 13)

중견 건설업체인 신성건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에 따른 영향이 자재업계로 번지고 있다. 특히 레미콘업계의 미수금이 100억여원에 달하는 등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유동성 위기를 겪어오던 시공능력평가 41위의 신성건설이 기업회생절차 개시와 재산보전 처분 및 금지명령을 신청함에 따라 자재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등이 동결되기 때문이다. 신성건설에 대한 미수금이 가장 많은 품목은 레미콘이다. 레미콘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현장에서만 60억여원의 납품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레미콘업계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지방현장까지 포함할 경우 업계 전체의 미수금 규모는 100억여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강도

콘크리트(PHC)파일도 상당수의 업체가 신성건설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성건설의 현장이 전국에 산재하다 보니 거래한 업체수도 10개사가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공사 기초용으로 사용되는 파일의 특성상 납품기간이 길지 않아 업체당 미수금도 10~20억원대가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시멘트는 생산업체보다 대리점 등 유통업체들이 대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파트 현장과는 달리 투입되는 벌크시멘트의 양이 적어 대부분 대리점들이 공급해 왔기 때문이다. 철근도 시멘트와 상황은 비슷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강사들의 경우 이미 다각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고 공급해 직접적인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자재업계는 신성건설에 이어 어느 건설사가 회생절차를 신청할지, 또는 부도처리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유동성 위기가 나도는 건설사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며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자재업체들은 대금지급을 연기하거나 감액을 요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거래중단 등의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레미콘업계 한 관계자는 “부실기업의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일정기간 미수금은 묶인다. 가압류등의 조치를 취해왔다고는 하지만 실효성이 없다. 이는 곧 자재업체의 유동성 위기로 연결된다. 레미콘의 경우 단일공장을 가진 업체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고 말했다. 파일업계 관계자도 “올 것이 왔다. 문제는 유동성 위기를 겪는 건설사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데 있다. 자재시장이 급속하게 위축돼 건설사와 자재업체간 거래관계가 상당기간 경색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도 콘크리트를 개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120MPa의 초고강도 콘크리트를 개발한 후 1년 만에 이룬 성과다. 하지만 올 4월에는 GS건설, 동양시멘트, 유진이 240MPa의 초고강도 콘크리트를 개발했고 3월에는 현대건설, 성신양회, 삼표가 200MPa 강도의 콘크리트를 개발했다. 이런 초고강도 콘크리트 개발 경쟁은 2006년 삼성건설, 아세아시멘트, 선일이 150MPa 강도의 콘크리트를 개발하면서 시작됐다. 일반적으로 40MPa 이상의 콘크리트를 고강도 콘크리트라고 하며 100MPa 이상의 콘크리트를 초고강도라고 한다. 현재 국내 건축물은 대부분 21MPa, 24MPa 강도의 콘크리트를 사용하며 아랍에미리트연합 두바이에 건설되는 세계 최고층 건물인 ‘버즈 두바이’도 80MPa 강도의 콘크리트를 사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시멘트 업체들과 건설사, 레미콘 업체들이 초고강도 콘크리트 개발하는 것은 수익성보다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업계는 판단한다. 업계 관계자는 “80~100MPa 강도의 콘크리트로 현존하는 지구상의 모든 건물을 지을 수 있지만 국내 업체들이 초고강도 연구에 매진하는 것은 기술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건설은 일본 도호쿠대, 충남대 등과 공동으로 구부러지지만 쉽게 끊어지지 않는 콘크리트를 개발했다. 이번에 개발된 것은 일반 콘크리트에 비해 최고 800배까지 늘어나는 초인성 콘크리트다. 초인성 콘크리트는 시멘트와 규사, 혼화제가 섞인 몰탈에 유기섬유를 혼합해 외부압력에 쉽게 끊어지지 않고 늘어나는 성질인 인성(靱性)을 강화한 특수콘크리트다. 이에 따라 삼성건설은 이번에 인장변형률(늘어나는 정도) 8% 이상의 초고인성 콘크리트 제조 기술을 확보하게 됐다. 이는 1m의 콘크리트 부재가 외부압력에 끊어지지 않고 최대 8cm까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삼성건설은 앞으로 지진에너지를 흡수, 균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초고층 건물의 코어(건물의 중심부) 연결보에 적용하는 한편, 공장 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하는 PC 연결보, 교량의 상판슬래브 연결부위 등에도 사용할 계획이다.

시멘트업계 “경쟁업체 제품보다 더 강력한 콘크리트 개발하라”
(2008. 12. 11)

시멘트 업체들이 건설사, 레미콘 업체들과 손잡고 초고강도 콘크리트 개발 경쟁에 나섰다. 지난 9일 한일시멘트는 포스코, 렉스콘과 250MPa의 초고강